

당입당은 했는데 정작 실천을 못하는 동지들을 위한 조언

민족민주혁명당



우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거라 성공할 수 있을진 보장을 못하겠음. 이 점에서 넓은 해량을 바라두고자 함. 다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니 대부분 성공할 수 있을거임.

1. 시도당 당직자들과 친해지자

전직이든 현직이든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도당 당직자들이랑 친해져보자. 페이스북 친구추가 하고 올리는 글마다 맛장구 쳐주고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가끔씩 당원인 것도 노출하는게 좋음. 그러면 심중팔구 다른 당직자, 상근자들한테 알려면서 "기특하긴 한데 못보던 애임"하면서 누군지 찾을게 분명함. 대충 이 정도 수준이 되면 페이스북 쪽지든 카톡이든 연락처 확보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보셈.

2. 의지를 보이자

이렇게 연락이 된다면 활동당원이 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보셈. "SNS에서 재야활동이나 해온 방구석 혁명가인데 얼마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입당했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음" 대충 이렇게. 이러면 우선 당 상관없이 지역 위원회 당직자나 청년조직 당직자를 연결해줄거임.

3. 만남

연결이 이루어졌다면 연결된 당직자가 한번 만나자고 말을 꺼낼거임. 반드시 만나자. 내부사정은 물론 교육, 집회 일정까지 알 수 있을거임. 가까운 시기에 교육이나 집회 등이 잡혀있다면 참여하겠다고 하자.

4. 첫 실천

당직자가 재량껏 자리를 마련해줄거임. 우선 직속 선배님들과 친해지자. 다른 당직자들도 여러명 만나고 자신이 처음 접촉했던 당직자도 만나보자. 이 때 국장, 처장 등 상근자들의 연락처도 되도록이면 확보해두자. 뒷풀이 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 더 좋다. 첫 실천은 꽤나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5. 상근자들과 친해지자

연락처를 얻은 상근자에게 연락해보자. 그리고 친해지자. 시도당 사무실 방문할 때 어색하지 않게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당원 소통방에도 초대받을 수 있다.

6. 시도당 사무실 방문

반드시 방문하자. 꺼려할 필요 없다. 당사무실은 당원들에게 얼마든지 열려있다. 반갑게 맞이해줄 것이다. 차 한잔 마시면서 자신의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자. 분회 같은 당원모임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자. 분회까지 조직되어야 진정한 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신뢰도가 쌓이면 회의 참관도 가능하고 회의록 열람도 가능하다. 가끔씩 노조활동가들도 오니 그쪽에도 접촉을 하면 좋을것이다.

7. 당원모임 참석

당원총회든 분회모임이든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참석, 활동하자. 당직자들이랑만 어울릴수는 없지않은가.

8. 결론

입당했다고 해서 당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